

전 남

완도 소안도 해수욕장 쓰레기 '몸살'

벼 재배면적 대폭 줄었다

페스티로폼·비닐·그물 등 넘쳐나

다도해해상사무소 관할 핑계 방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구인 완도 군 소안면 미라리 소안도 해수욕장이 바다에서 밀려 온 각종 산업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방풍림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곳이다.



완도 소안도해수욕장 백사장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지만 그대로 방치돼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김모(58)씨는 "다도해해상사무소가 연간 수억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쓰레기 처리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바다 쓰레기는 국토해양부 관할이라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TV로 도서 벽지 교육질 높인다

22개 지역 IPTV 공부방 개소 공식 운영

전남지역에 청소년 교육을 위한 IPTV(인터넷TV) 공부방이 들어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도서벽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과 합

작업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학습교사를 지원하며 삼성전자는 LCD TV 1대, KT는 1년간 IPTV회선 및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수업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13년까지 IPTV 공부방을 도내 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비빔밥 잘 비웠죠' '제10회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참가한 각국 청소년들이 25일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구(砂丘)보호 당연하지만..."

우이도 출입금지 5년 연장에 주민들 반발

피서철을 맞아 동양 최대 모래 언덕이 있는 신안군 우이도 주민들은 빗발치는 관광객 전화로 속이 시커 멀게 타들어가고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막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풍성 사구(砂丘)'를 볼 수 있는냐'는 전화가 그치지 않고 일부는 발걸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도해 서부사무소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기간을 연장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구 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사구 내 모래 이동량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입통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 불통이 영통한 곳으로 뒤고 있다"며 "사구 출입은 할 수 없지만, 바다 쪽 탐방로를 따라 사구의 비경은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차밭 해충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

농기원, 농약살포 않고 '페로몬 트랩' 설치 노린재 잡아

녹차밭에 피해를 끼치는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제 성충을 포획하면 피해를 5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장을 멈추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기 이하
남구 서동 대지 467㎡(141평) 건물은 50평과 101평 2동 있음.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6,571㎡(1,990평) 매매가 14억 4천만원,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9~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를 80%이상